

동부스마트리버스레버리지목표전환형

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제H-5호 [주식-파생형]

상품제안서

2017. 1

1. 본 자료는 당사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사모 펀드에 가입한 고객에 한해 제공되어지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구체적인 투자상품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한 광고물이 아니며, 해당 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한 상품 소개서입니다. 또한, 당사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 본 자료에 수록된 기대수익률 등은 보장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3. 본 자료에 수록된 운용계획은 집합투자계약 및 운용방침 변경 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4. 본 자료의 각종 예시는 상품성격에 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된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운용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본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Contents

I. 펀드 특징	2
II. 상품 개요	4
III. 운용 전략	5
IV. 운용인력 현황	9
V. 유의사항	10
VI. 주요 투자위험	11
[별첨]	12

왜 동부 스마트 리버스 레버리지 펀드인가?

KOSPI지수의 역의 성과를 추종하는 자산에 투자 하여 5% 수익 달성을 목표로 하는 목표전환형 펀드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이상을 KOSPI200지수선물(매도) 등에 투자하여 주식 시장 역의 성과 추종

☞ KOSPI 200 지수선물 매도 등을 통해, 주가 지수 하락에 따른 수익 추구

✓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마다 KOSPI200지수 선물 매도(레버리지 확대)의 확대를 통해
향후 지수 하락에 따른 수익 기대

☞ 기준 지수(설정일 KOSPI종가) 대비 1% 또는 2%이상 상승 시 마다 KOSPI200지수선물 매도 비중을
최대 150% 수준(순자산 기준) 까지 확대 (유동성 중 일부를 선물증거금으로 활용)

✓ 목표전환 수익률: 누적 5% 수준 (연수익률 아님)

☞ 낮은 예금금리, ELF 쿠폰 및 주식시장 상황을 고려한 목표 수익률 설정

※ 목표수익률 5.0%는 선취수수료 차감 후 투자원금 기준이며, 투자원금 기준 실제 수익률은 약 3.95% 수준임

예시) 1000만원 가입 시 → 선취 수수료 (1.0%) 차감 후 실제 투자금액은 약 990만원, 목표수익 도달 시 990만*1.05 = 약 1,039.5만원

동부 스마트 리버스 레버리지 펀드의 장점

✓ 목표전환 수익률 달성 시 (누적 5.0%) 채권-파생재간접형 펀드로 전환하여 수익률 관리

☞ 전환조건 (1,050원) 달성 시 3영업일 이내 주식관련 자산을 전량 매도하여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유동성 자산에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을 안정적으로 유지(단, 전환 후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유동성자산 등에서는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식관련 자산에 대부분을 투자하여 주식매매차익 비과세 혜택



펀드명	동부스마트리버스레버리지목표전환형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H-5호 [주식-파생형] (운용전환 후) 동부스마트리버스레버리지목표전환형전문투자형사모증권투자신탁 제H-5호 [채권-파생재간접형]
신탁형태	증권형(주식-파생형), 개방형, 단위형, 전문투자형, 사모형
신탁계약기간	- 5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년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까지로 하되, 투자신탁의 계약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함
주요운용대상	- 주식관련 파생상품 : 60% 이상, 단 전환조건을 달성하여 전환하는 경우 0% - 집합투자증권: 40% 미만. 단, 전환조건 달성 이후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에 60%이상(주식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0%)
전환조건	- 전환조건 : 누적기준가격 1,050원 (주1) - 전환조건 달성 후 운용방식 : 3영업일 이내 주식 관련자산 전량 매도 후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유동성으로 운용 - 운용전환일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에 도달한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제3영업일
환매수수료	없음
환매방법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 기준가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지급 ※ 단, 15시30분 경과 후 환매청구시 제3영업일 기준가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지급
선취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0%
투자신탁보수	(운용전환 전) 총보수: 0.78% (집합투자업자: 0.50%, 판매회사: 0.25%, 신탁업자: 0.02%, 일반사무관리: 0.01%) (운용전환 후) 총보수: 0.43% (집합투자업자: 0.25%, 판매회사: 0.15%, 신탁업자: 0.02%, 일반사무관리: 0.01%)

(주1) 전환조건이라 함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하며, 누적기준가격은 펀드결산 시 각 기에 발생한 이익분배율(세전기준)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않습니다.

※ 투자신탁은 주가지수가 상승할수록 “주식시장과 역의 수익률관계에 있는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 시 펀드의 손실은 더욱 확대됩니다

포트폴리오 구성

- KOSPI 200지수 선물(매도)에 주로 투자: 신탁재산의 60% 이상
- 시장 상황에 따라 인버스 ETF 등에도 투자 : 신탁재산의 40% 이하

[투자대상 ETF 유니버스]

KODEX 인버스	TIGER 인버스	KINDEX 인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년 9월 상장 ✓ 시가총액 : 18,683억원 ✓ 거래대금 (60일 평균) : 1,746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3월 상장 ✓ 시가총액 : 433 억원 ✓ 거래대금 (60일 평균) : 24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9월 상장 ✓ 시가총액 : 112 억원 ✓ 거래대금 (60일 평균) : 6억

※ 인버스ETF는 기초지수의 일별수익률만을 매일 (-)1배수만큼 추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누적수익률에 대해서는 -1배수로 연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초지수의 일정기간 누적수익률이 마이너스(-) 이거나 0%(제로)에 가까우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인버스ETF의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 ETF매수/매도는 펀드설정/해지 금액과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주식시장(유통시장)에서 거래를 통해 매수/매도하지 않고 직접 설정/해지하는 방식(발행시장 활용)으로 매수/매도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당 펀드에 편입되는 ETF는 시가총액, 거래대금, 총보수 등을 고려하여 편입 시점의 시장 상황에 맞추어 편입할 ETF를 결정하게 됩니다.

※ 위의 투자 대상 ETF가 상장 폐지 또는 다른 이유 등으로 편입하기 힘들 경우, 위의 조건 등을 고려하여 대체 가능한 ETF 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 투자신탁은 주가지수가 상승할수록 “주식시장과 역의 수익률관계에 있는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 시 펀드의 손실은 더욱 확대됩니다

세부 운용전략

전환 전 : KOSPI 지수 상승률에 따라 주식관련 자산 투자비중 (레버리지 비율) 조정

- 예측 가능성을 높인 수익률 구조로 주식관련 자산 (KOSPI200지수 선물 또는 ETF)에 투자
- 사전 정해진 원칙에 따라 KOSPI 지수 상승률에 따라 주식관련 자산 투자비중 조정
- 주식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비중은 NAV의 (-)1배 수준 ~(-)1.5배 수준

◆ 레버리지 비율(주식관련 자산 투자비중) 조정 기준

- 기준 증가: 설정일 KOSPI 지수 증가 / 레버리지 비율: KOSPI 지수 당일 증가 기준
(KOSPI 지수의 당일 증가가 결정된 후 KOSPI지수 하락률에 맞추어 당일에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을 조정하게 되므로 편입 비중 조정 시 오차가 발생하거나 조정이 어려울 수 있음)
- KOSPI 지수가 일정구간 상승 시 마다 투자비중 증가(1.0%, 2.0%, 4.0% 상승 시 각 1회만 조정)

◆ KOSPI지수 상승률에 따라 투자비중 조정 후, 상향 조정된 투자비중은 다시 하향되지 않음

전환 후 :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유동성 자산으로 안정적인 운용

— 주식관련 자산 투자비중 —

KOSPI지수 상승률	주식 관련 자산 투자비중	레버리지 비율
최초 설정일	-100%	-1.00배
1.0% 상승하는 경우	-120%	-1.20배
2.0% 상승하는 경우	-135%	-1.35배
4.0% 상승하는 경우	-150%	-1.50배

누적기준가격
1,050원

전환조건 달성일 기준
3영업일 이내

— 안전자산으로 전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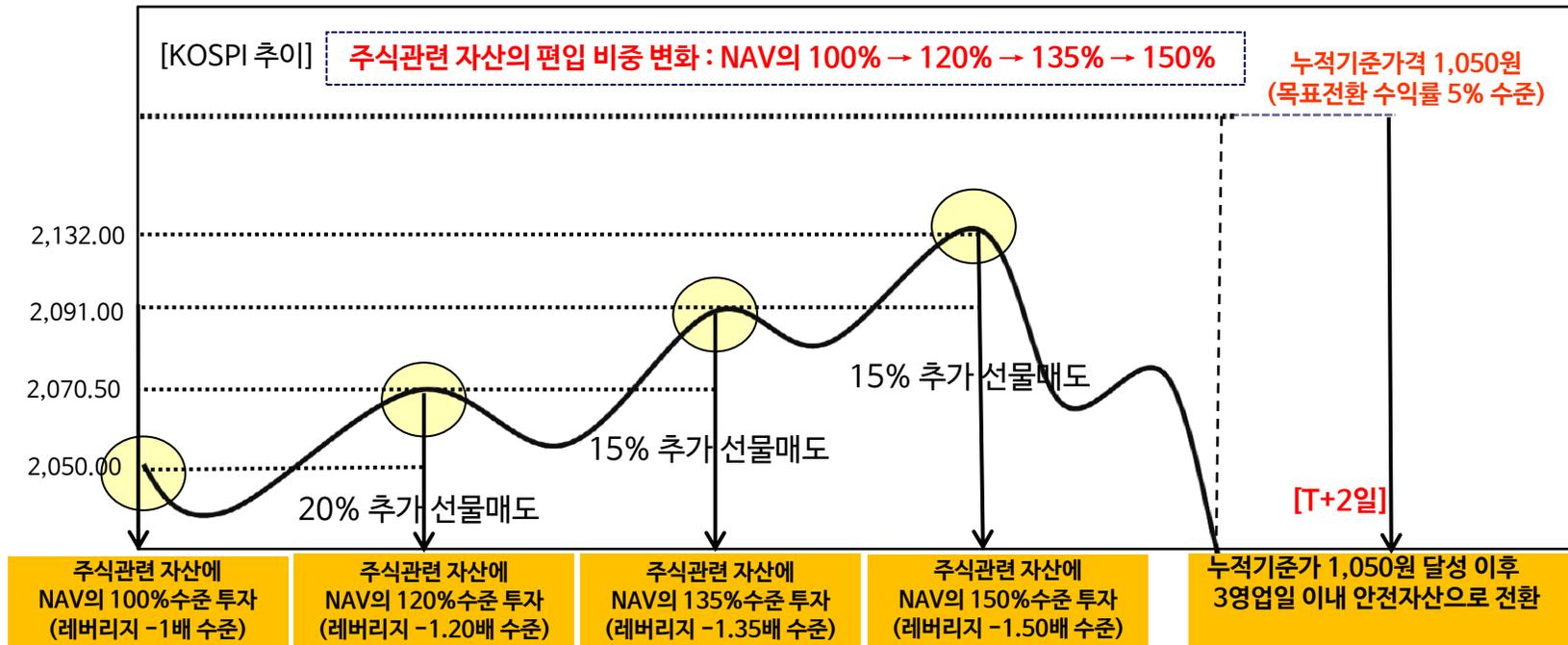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유동성 등
편입 비중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60% 이상

- ※ 펀드에서 언급하는 “레버리지”는 KOSPI지수가 정해진 지수 범위에 도달할 경우 당 펀드 순자산의 (-)1배, (-)1.2배, (-)1.35배, (-)1.5배까지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을 조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와 같이 매일매일 해당 레버리지 수준을 맞추어 편입비율을 조절 하는 것은 아닙니다.
- ※ 펀드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전환조건) 달성 시 펀드 상환 조건에 해당됩니다. 이 때, 전환조건 달성 이후 보유하고 있는 주식관련 자산을 매도하고 상환시까지 채권 및 유동성 자산으로 전환하여 운용합니다.
- ※ 투자신탁은 주가지수가 상승할수록 “주식시장과 역의 수익률관계에 있는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 시 펀드의 손실은 더욱 확대됩니다

세부 운용전략(예시)

▪ KOSPI지수가 기준일 지수 대비 각 1%, 2%, 4% 씩 상승 시, KOSPI 200 지수선물 매도 비중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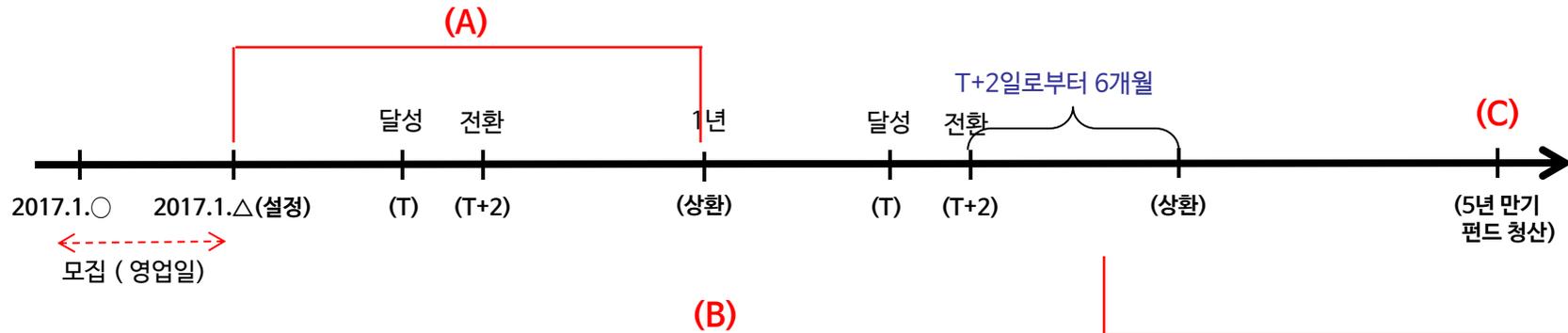
- 단순 예시 수익률로서 펀드가 KOSPI 지수(종합주가지수) 2,050pt에서 시작된 경우를 가정
- **지수관련 자산: KOSPI200지수선물 매도, 인버스ETF**
- 주식 포지션만으로 수익률을 계산하였으며, 주식관련 자산의 수익률이 KOSPI 지수의 역의 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



• 누적기준가격 1,050원 도달 후, 주식관련 자산 청산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변동 및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1,050원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펀드 운용 시 선물과 지수 간 베이스 차이, ETF추적오차, 거래비용, 이자자산 수익률 변경 및 과세 그리고 매매 시 시장 충격, 신용위험의 발생 등으로 예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목표수익률 5.0%는 선취수수료 차감 후 투자원금 기준이며, 납입원금 기준 실제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전환 조건 및 상환 (예시)

- 기간에 관계없이 전환조건 (누적기준가격 1,050원) 달성 시, 3영업일 이내 주식관련 자산 전량 매도



- (A)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표수익 달성시**
- 달성일(T일)로부터 3영업일(T+2일) 이내에 채권 및 유동성으로 전환 후 **설정일로부터 1년에 해당하는 날 상환**
- (B) **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목표수익 달성시**
- 달성일(T일)로부터 3영업일(T+2일) 이내에 채권 및 유동성으로 전환 후 **전환일로부터 6개월에 해당하는 날 상환**
- (C) **설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목표수익 달성을 못할 경우: 설정일로부터 5년에 해당하는 날 펀드 상환**

※ **상환과 무관하게 언제든지 중도 환매 가능**

- ※ **전환조건(목표전환 수익률)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달성 됨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누적기준가격은 펀드결산 시 각 기에 발생한 이익분배율(세전기준)을 반영한 기준가격을 말하며 공시되지 않습니다.
- ※ 목표수익률 5.0%는 선취수수료 차감 후 투자원금 기준이며, 납입원금 기준 실제 수익률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전환조건 달성 이후 보유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파생재간접형(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 펀드의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파생재간접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유 자산의 가격 변동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소 속	성 명	담당 업무	주 요 경 력
퀀트운용본부	이경희	운용 및 본부 총괄	동원증권 투자공학부, 주식운용팀 동부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장
인덱스운용팀	정규영	운용 및 팀 총괄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교보증권 동부자산운용 인덱스운용팀장
	김세현	운 용	신영증권 동부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강신영	운용지원	동부자산운용 리테일영업본부 동부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김지혜	운용지원	유리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퀀트전략팀	홍은표	운용	한국채권평가, LS자산운용 동부자산운용 퀀트전략팀장
	이경호	운용	대우증권 동부자산운용 퀀트운용본부

- 동 펀드는 투자신탁재산을 **주식시장과 역의 수익률관계에 있는 주식관련 자산(이하 “주식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며, **KOSPI지수의 수준에 따라 “주식관련 자산”에 150% 수준까지 투자할 수 있는 “리버스 레버리지” 펀드입니다.** (단, 레버리지 인덱스 펀드와 같이 매일매일 해당 레버리지 수준을 맞추어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을 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펀드 운용 시, 선물과 지수 간 베이스스 차이, ETF추적오차, 거래비용, 이자자산 수익률 변경 및 과세 그리고 매매 시 시장 충격 등으로 예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펀드 최초 설정 시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은 100%수준이며 **KOSPI지수(펀드 최초 설정일 종가 기준)를 기준 지수로 하여 “주식관련 자산”을 편입하게 됩니다.**
- 투자신탁 운용기간 중 **KOSPI지수(증가 기준)가 하락하여 기준 지수 대비 1%,2%,4% 상승할 때 마다 당일에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을 NAV(당일 추정 NAV)의 120%(-1.2배), 135%(-1.35배), 150%(-1.5배)수준까지 조정하여 증가시키며 KOSPI지수 상승에 따라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을 확대한 후, KOSPI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확대된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은 변경하지 않습니다.**
- KOSPI지수 상승률에 따라 편입비중 조정을 완료한 후에도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 **일별 순자산대비 레버리지 비율은 사전에 정해진 레버리지 수준을 하회 또는 상회할 수 있으며, 일정 수준 이상의 환매가 발생할 경우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환매 발생 시점의 레버리지 비율로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 조절)**
- KOSPI지수의 종가가 결정된 후 KOSPI지수 수준에 맞추어 당일에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중을 조정하게 되므로 **편입 비중 조정 시 오차가 발생하거나 조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KOSPI지수가 상승할수록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 비율(리버스 레버리지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KOSPI지수 상승 시 펀드 성과는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전환조건인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 이상(목표전환 수익률 5% 수준) 달성 시, 해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주식관련 자산을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유동성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여 운용합니다.
- **목표전환 수익률은 5%수준으로,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 이상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펀드 최초 설정일 이후 가입한 고객 의 수익률은 전환조건이 달성되더라도 목표전환 수익률 5% 수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전환조건 달성 후 “주식관련 자산”을 매도하고 **채권관련 집합투자증권 및 유동성 등 안전자산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자산으로 전환하여 운용되는 기간에도 투자자산 가격 변동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원본 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증권 등 가격변동위험	투자대상 증권 발행회사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 악화 및 시장에서의 증권 수급상황 등의 이유로 인해 투자대상 증권 가격하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시장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주식관련 자산등과 채권 및 관련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증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 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재산의 가격 변동에 의해 원금 손실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유동성위험	증권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 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은 적은 원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과 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가지수가 상승할수록 “주식시장과 역의 수익률관계에 있는 주식관련 자산”의 편입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가 상승 시 펀드의 손실은 더욱 확대됩니다. 또한 전환기준가격 도달 후 자산 매도 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변동 등의 요인으로 인하여 상환 시 기준가격은 전환기준가격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채권-파생재간접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유자산의 가격변동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을 하회할 수 있습니다.
ETF(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상장폐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은 상장폐지 시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은 해지되고, 이 투자신탁은 해당 증권에 대한 투자금을 주식현물, 현금, 파생상품, 또는 유사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등의 형태로 분배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유통시장을 통한 해당 증권 현금화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잔여자산을 분배 받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장폐지 시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의 거래금액과 회수금의 차이가 발생하거나, 세금 등의 기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여자산 분배 시까지의 기간 동안 해당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이 추종하는 지수가 상승하는 경우 이 투자신탁은 상대적으로 비교지수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며, 잔여자산을 분배 받은 후 해당 자산으로 재투자할 적절한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을 찾지 못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본래의 투자목적 달성이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롤오버(Rollover) 위험	이 투자신탁은 KOSPI 200 지수를 기초지수로 하는 주가지수선물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만, 선물은 현물과는 달리 만기일이 있기 때문에 차기(次期) 선물로 다시 재투자하여야 하는데 재투자가격이 만기일의 만기상환금액과 일치하지 않을 위험(이를 롤오버[Roll over] 위험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본래의 투자목적 달성이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지수산출방식의 대폭 변경 또는 중단 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적대상지수를 관리하는 지수관리회사의 사정으로 그 지수의 산출방식이 대폭 변경되어 기존의 투자전략으로 더 이상 그 지수를 추적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수관리회사의 사정 또는 기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하여 지수의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이 중단되고, 상장 폐지 및 해당 투자신탁의 전부 해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때에는 이로 인하여 수익자는 기대하지 아니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KOSPI 변동에 따른 펀드 예상 수익률

[시뮬레이션 조건]

- 단순 예시 수익률로서 펀드가 KOSPI 지수(종합주가지수) 2,050pt에서 시작된 경우를 가정
- 주식관련 자산: KOSPI200지수 선물매도, 인버스 ETF
- 주식 포지션만으로 수익률을 계산하였으며, 주식관련 자산의 수익률이 KOSPI 지수의 역의 수익률과 동일하다고 가정

등락율	KOSPI	1.0% 미만 상승 후 하락	1.0% 이상 상승 후 하락	2.0% 이상 상승 후 하락	4.0% 이상 상승 후 하락
5%	2153				
4%	2132				-4.83%
3%	2112				-3.40%
2%	2091			-2.19%	-1.95%
1%	2071		-1.00%	-0.87%	-0.48%
0%	2050		0.19%	0.47%	1.01%
-1%	2030	1.00%	1.39%	1.83%	2.53%
-2%	2009	2.01%	2.61%	3.20%	4.06%
-3%	1989	3.03%	3.84%	4.59%	5.63%
-4%	1968	4.06%	5.08%	6.01%	
-5%	1948	5.10%			
-6%	1927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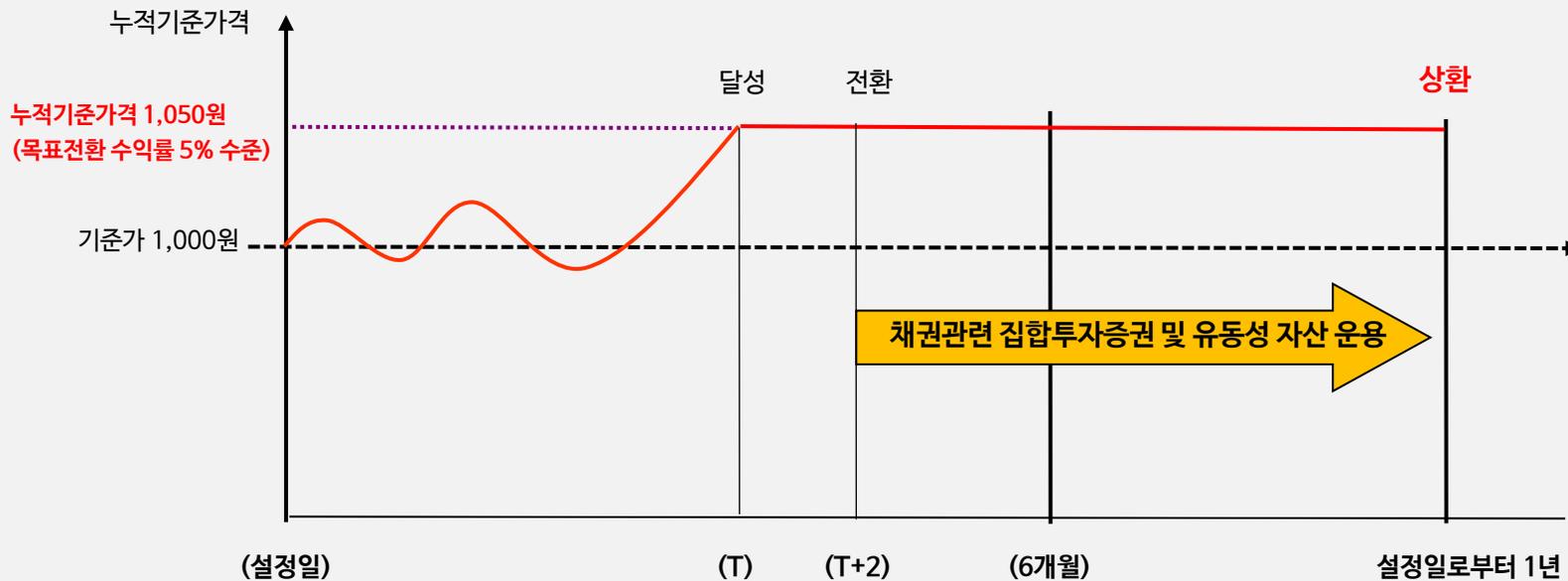
- 수익률 예시는 절대수익률 기준으로 변환산 수익률이 아니며, 단순 예시 수익률입니다.
- 실제 펀드 운용 시 선물과 지수 간 베이스스 차이, ETF추적오차, 거래비용, 이자자산 수익률 변경 및 과세 그리고 매매 시 시장 충격, 신용위험의 발생 등으로 예시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KOSPI지수를 기준으로 주식 관련 자산이 편입되기 때문에, KOSPI지수와 KOSPI200 지수간 괴리 발생 시 상기 시뮬레이션은 오차가 발생합니다.

펀드 설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 전환조건 달성 시 - 누적기준가격 1,050원(목표전환 수익률 5% 수준) 달성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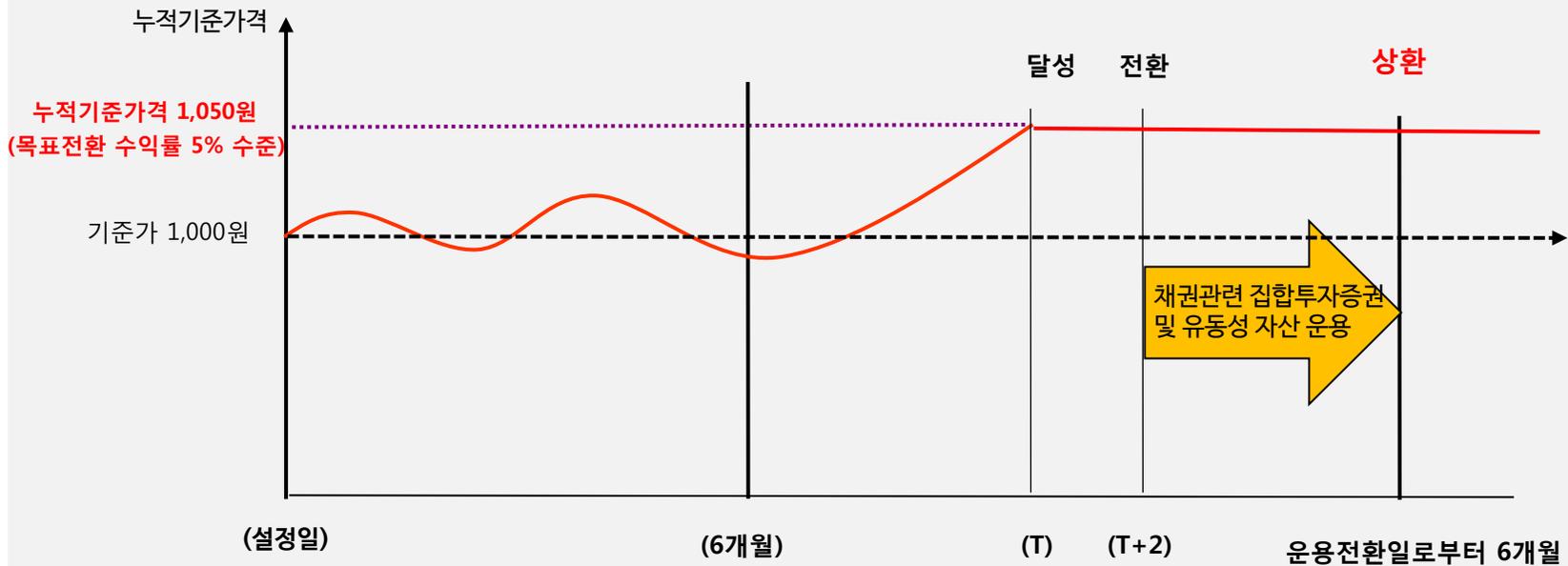
→ 운용전환일(전환조건 달성일(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이 펀드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신탁 최초 설정일로부터 1년에 해당되는 날에 상환



펀드 설정일 6개월 경과 후에 운용전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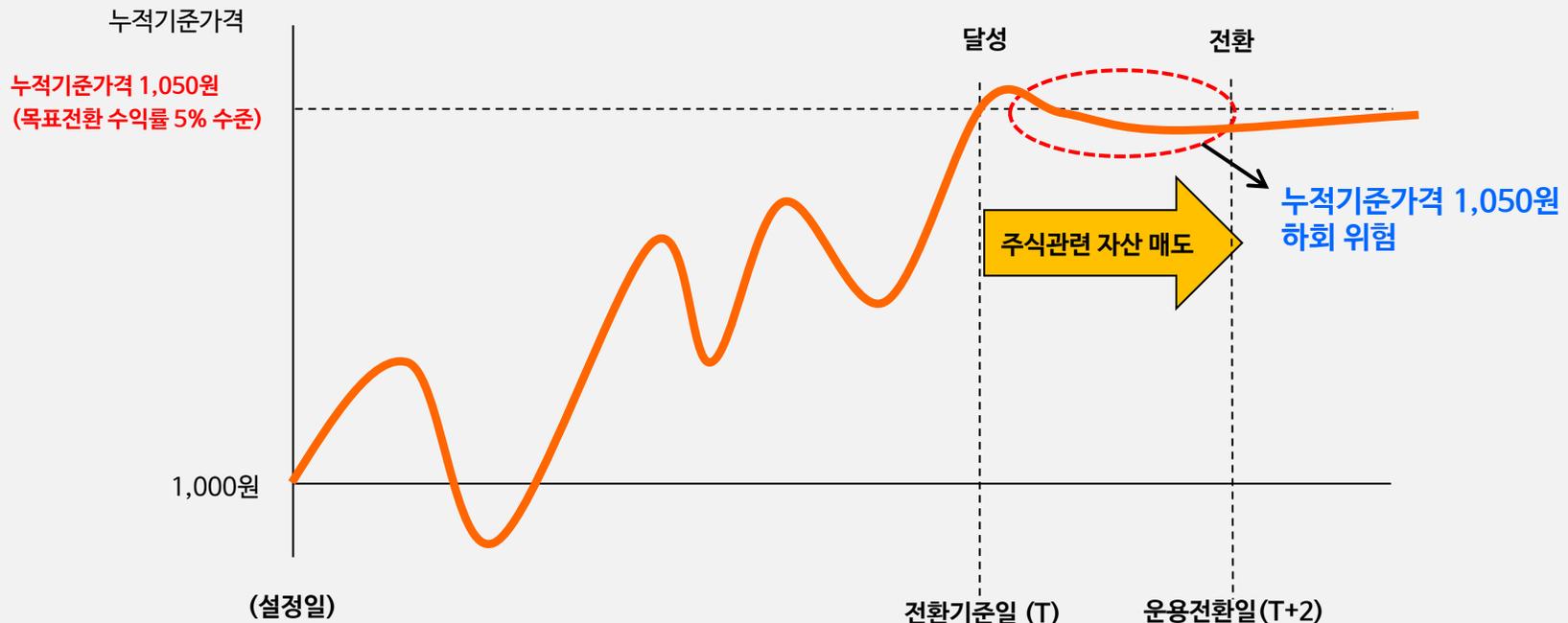
◆ 전환조건 달성 시 - 누적기준가격 1,050원(목표전환 수익률 5% 수준) 달성 시

→ 운용전환일(전환조건 달성일(포함)로부터 제3영업일)이 펀드 최초 설정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에 해당하는 경우,
 운용전환일 이후 6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상환



누적기준가격 1,050원 하회 위험

-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에 도달한 이후 주식관련 자산의 매도 과정에서
주식관련 자산의 가격 하락 및 시장 충격 등으로 인해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전환조건)을 하회할 수 있음.**



- 채권-파생재간접형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보유자산 가격 변동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기준가격이 1,050원을 하회할 수 있음.**

본 자료는 당사 및 당사펀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본 사모 펀드 가입고객에 한해 제공되어지는 자료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정보에 근거하여 기술하였으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Contacts

리테일영업본부	전철호 본부장 787-3735 chjeon@dongbuam.com
리테일영업팀	인현덕 팀 장 787-3885 hyun@dongbuam.com 강성언 차 장 787-3817 kse@dongbuam.com 손경주 사 원 787-3884 kjson@dongbuam.com

- ❖ 본 자료에 수록된 목표수익률 등은 보장수익률을 의미하지 않으며 시장상황 및 운용여건 등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 ❖ 본 자료에 수록된 운용계획은 약관 및 운용방침 변경 시 수정될 수 있습니다.
- ❖ 본 자료의 각종 예시는 상품성격에 대한 설명의 편의를 위해 단순화된 상황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운용성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